



채 흥 석 우리회사무소협의회 위원장  
(주)세진에스씨엠 대표

##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근래에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사용범위는 계속 확대되어 왔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폐기물을 포함하는 환경문제의 최소화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이 가능하고, 극심한 경쟁체계 속에서 공기단축, 숙련공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는 건설 환경의 기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국내 데크플레이트 시장규모는 여러 업체의 생산량을 고려할 때,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시장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건설 환경과 여러 경제지표는 미래를 낙관하기 어려운 입장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데크플레이트의 종류 별 기능차이가 크지 않아 생산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2013년 좋은 가을 날(2013. 10. 23)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본 회”) 사무국에 다수의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 관계자와 본 회 사무소협의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 동안 몇 차례 준비 모임을 통하여 상호 협의된 내용으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경제성 비교연구”를 시작하는 자리였다.

다른 분야의 관계자들과 가졌던 몇 차례의 준비모임과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누었던 생각들을 捨短取長(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의 마음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분야는 다르나 놓아진 현실과제와 준비해야 할 미래가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 협력해서 해결한다.

금번 연구는 다수의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 요청으로 본 회에서 수행하였다.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들은 아직 협회나 협의회가 있지 않아 각 사의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석하였는데, 서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으면서도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개별 프로젝트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데크플레이트 시장확대라는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 없이 합치하는 모습은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예로 삼을 만 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개별적인 부분과 공동의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생산업체 관계자들은 개별적인 주장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고 단합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고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한다.

대부분의 철골 구조물에서는 데크플레이트의 사용이 일반화 되어있어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 입장에서 기존 시장의 외연 확장은 기대치가 떨어진다. 아울러 향후의 건설 시장에서 인건비 상승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공사비의 내용 중에 인건비의 비중이 해마다 상승되는 것은 건설 산업의 수익구조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기존의 습식구조에서 채택되던 가설재를 이용한 바닥 구조체 형성방법 보다는 현장작업의 최소화가 가능한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성 확보차원에서 필수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를 데크플레이트로 대체하면 기대효과가 크고 기존 시장의 외연 확대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형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의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적합한 시공상세를 꾸준히 준비하여 왔고 많은 경험 속에서 수정 보완하여 현장적용성을 높여 왔다. 데크플레이트를 철골구조에만 적용하는 제한된 상식을 벗어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적용할 경우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셋, 희망도 만들어진다.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대화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담겨 있었고, 여러 가지 혼재된 난관에 곤란함도 느끼고 있었지만 대화의 말미에는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단련이 되어서인지 현실 토로보다는 방안마련에 보다 적극적이었고 그러한 모습은 옆 사람에게도 절로 기운이 나누어주는 효과가 있는 듯하였다. 그런 면에서 희망만 가지고 내일을 맞기 보다는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희망이라고 생각한다면, 희망도 만들어 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경제성 비교연구”에 참여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대화와 업무진행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상호협력과 방안 모색 및 긍정의 자세는 특히 선명하게 남겨져 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약간의 어려움을 무겁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고 가는 하나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며 내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져본다.

- 회의참석 : 송동범 우리회 부회장 (주)일구조 대표이사
- 채홍석 우리회 위원장 (주)세진에스씨엠 대표이사
- 이호찬 우리회 이사(주)MCS구조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